



ETS INSIGHT

2023.08 — Vol.61

ETS INSIGHT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Market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구독
신청



전 호
보러가기



정 보 지 인 용
인 증



구 독 자
퀴즈



모 바 일 채 널
바 로 가 기

CONTENTS

↙ 아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01



알림
/소식

02



K-ETS
in Focus

03



Global ETS
in Focus

04



국내
기후변화 동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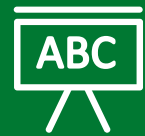
해외
기후변화 동향

06



구독자
참여 페이지

07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목차로 돌아가기

2023년 배출권거래제 주요일정

August 08

2023년 8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

입찰일시 8월 9일(수) 13:00~14:00

입찰수량 2,150,000톤 (입찰 배출권 종류: KAU23)

낙찰한도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예정일의 입찰수량 (해당일 입찰수량)의 15%로 제한 - 15% 초과시 호가 거부

참고링크 KRX 배출권시장 정보 플랫폼 [▶ 바로가기](#)

참고링크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계획 [▶ 바로가기](#)

※ 제도 운영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NGMS, ETRS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rch 03

- | '22년도 명세서 제3자 검증 및 제출
-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신청

04 April

- | 명세서 배출량 적합성 평가
- | 추가할당/할당취소 적절성 검토 실시

May 05

- | '22년도 배출량 인증 통보
- | 추가할당량 및 할당취소량 통보

06 June

- | 배출량 인증 통보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 | 적합성 평가 및 추가할당/할당취소 검토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July 07

- | 인증 이의신청 결과 통보
- | 할당대상업체 신규 진입 지정고시

08 August

- | '22년도 배출권(KAU22) 이월·차입 신청 및 제출
- | 이의신청 업체의 이월 차입 신청 및 '22년도 배출권 제출
- | 신규 진입에 대한 이의신청
- | 신규진입자 할당신청서 제출
- | 신규진입자 배출량 산정계획 사전검토 요청

September 09

- | 할당신청서 적절성 검토
- | 신규 진입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

10 October

- |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3자 검증 및 제출
- | 신규진입자 사전할당량 통보

November 11

- | 배출량 산정계획서 타당성 검토 실시
- | 신규진입자 사전할당량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12 December

- | 신규진입자 사전할당량 이의신청 결과 통보
- | 신규진입자 배출량 산정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 | 배출량 산정계획서 추가검토 결과 반영 및 제출



'22년도 배출권 이월·차입·제출 시기 안내 바로가기 [👉](#)

알림 / 소식



목차로 돌아가기

행사/일정

August 8 —————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6	7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8/31) (환경부)	8	9 8월 배출권 (KAU 23) 유상할당 경매	10	11	12
13	14	15	16 경기도 with ESG(미래를 위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중심으로) 포럼 안내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17	18	19
20	21	22	23	24 2023년 ESG 경영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교육 안내 (~8/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5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부)	26
27	28	29	30	31 이월·차입 신청 마감 제출신고 마감(16시)	9/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9월 배출권 (KAU 23) 유상할당 경매	14	15	16

※ 상기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림 / 소식



목록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2023.07.01. ~ 07.31.

지표배출권 KAU22 거래 현황

종가 기준 : (당월) 7월 31일 / (전월) 6월 30일

구분	7월						누적('21.1.1~'23.7.31)		
	종가	최고가	최저가	전월비	등락률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가격 (원)	9,500	10,450 (*23.07.05)	7,020 (*23.07.24)	800	▼ 7.77%	9,698	32,700 (*21.11.12)	7,020 (*23.7.24)	12,367

구분	거래량(톤)			거래대금(천원)		
	7월	전월비	누적	7월	전월비	누적
장내거래	9,616,147	▼ 4,128,566	40,650,566	93,261,224	▼ 64,663,210	502,735,206
장외거래	1,138,061	▲ 404,369	7,979,356	-	-	-
합계	10,754,208	▼ 3,724,197	48,629,912	93,261,224	▼ 56,434,960	502,735,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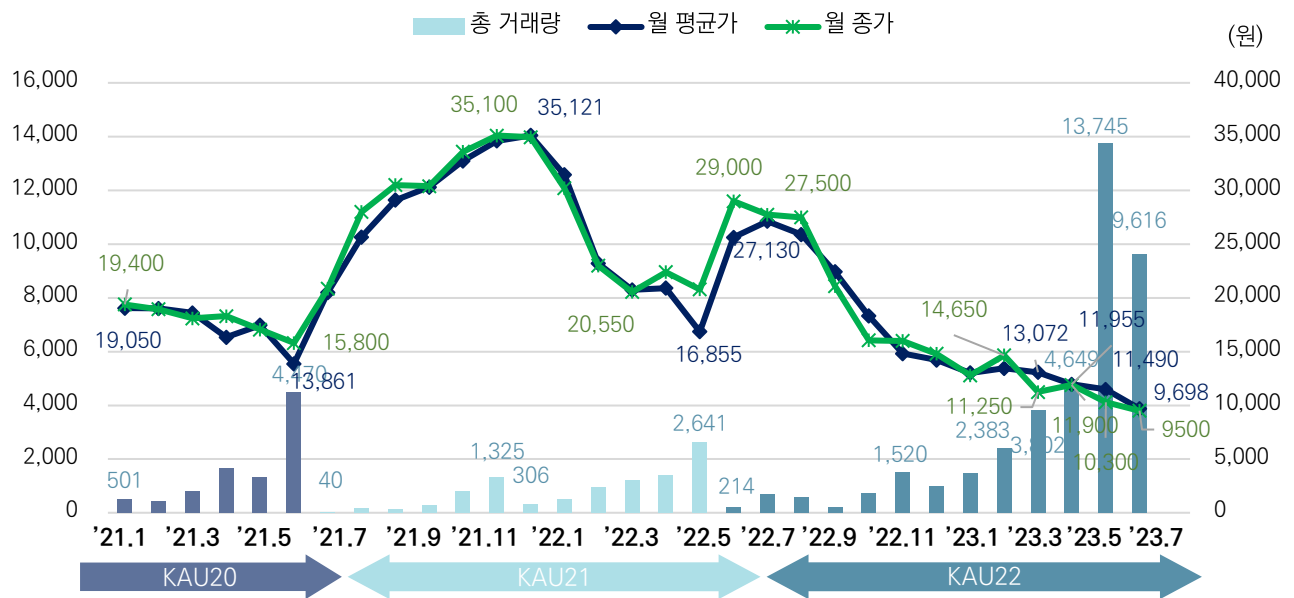
*누적 기간은 '21.1.1.부터 '23.7.31.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2023년 7월 배출권 거래는 KAU 23으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참고)

국내 통계

지표배출권 장내거래 현황

DATA



배출권 일일 거래량 및 가격 확인 방법

ETS Insight 51호 바로가기

ETS INSIGHT 51호 11페이지 Q&A를 통해 국내 배출권 거래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K-ETS in Focus

2023.07.01. ~ 07.31.



목차로 돌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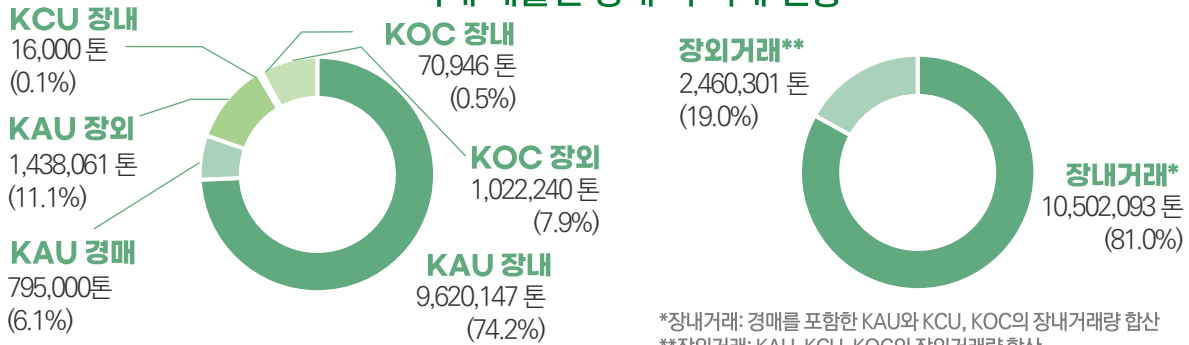
국내 배출권 종목별 거래 현황

종가 기준 : (당월) 7월 31일 / (전월) 6월 30일

구분	거래량(톤)	비율(%)	세부구분	거래량(톤)	비율(%)
KAU	11,853,208	91.4%	장내	9,620,147	74.2%
			경매	795,000	6.1%
			장외	1,438,061	11.1%
KCU	16,000	0.1%	장내	16,000	0.1%
			장외	0	0.0%
KOC	1,093,186	8.4%	장내	70,946	0.5%
			장외	1,022,240	7.9%
합계	12,962,394	100%	합계	12,962,394	100.0%

국내 통계

국내 배출권 장내·외 거래 현황



구분	종가			거래량		
	당월종가	전월종가	전월비	합계	장내*	장외
KAU22	9,500	10,300	▼ 800	10,754,208	9,616,147	1,138,061
KAU23	10,800	10,000	▲ 800	1,099,000	799,000	300,000
KAU24	11,250	11,250	-	-	-	-
KAU25	11,250	11,250	-	-	-	-
KCU22	8,700	8,210	-	16,000	16,000	-
i-KCU22	15,450	15,450	-	-	-	-
KOC21-23	11,000	11,000	-	-	-	-
KOC22-24	10,100	10,500	▼ 400	70,946	70,946	-
i-KOC21-23	11,650	11,650	-	369,601	-	369,601
i-KOC22-24	13,000	13,000	-	-	-	-

*장내: KAU23 경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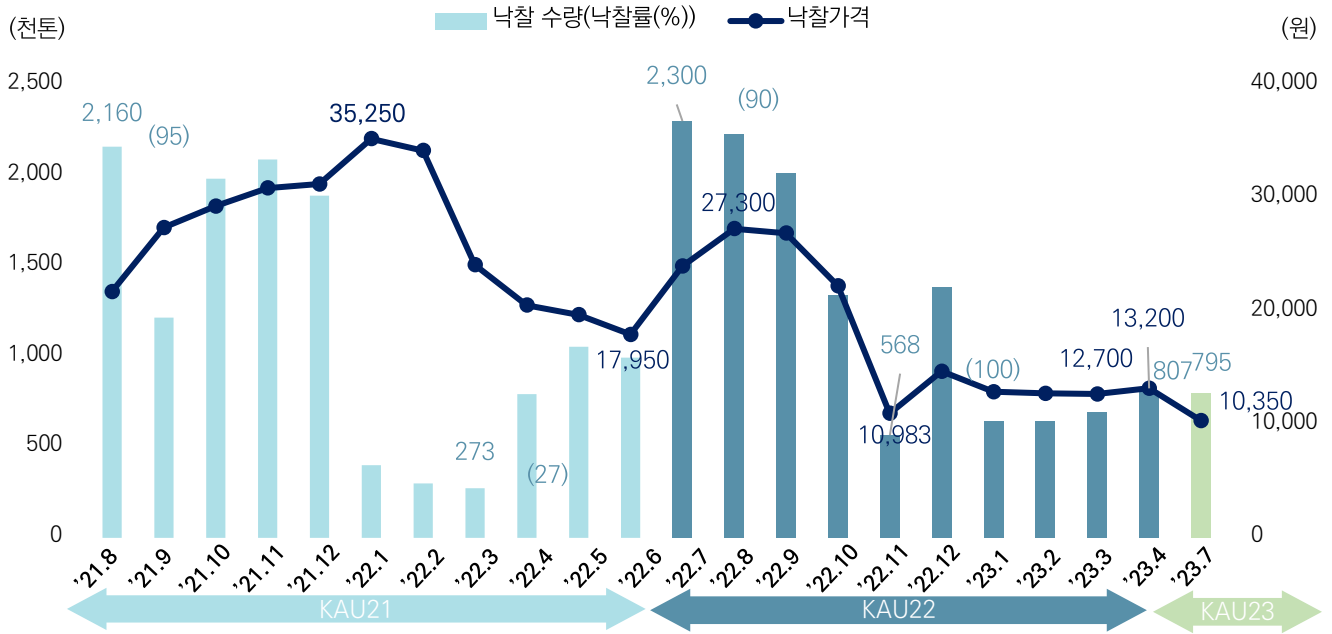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배출권 경매

DATA

국내 통계



※낙찰률: 낙찰수량/응찰수량

경매일자	종목	입찰수량 (톤)	응찰수량 (톤)	낙찰가격* (원)	낙찰수량 (톤)	총낙찰액 (백만원)
2019	KAU18	4,790,000	7,258,400	26,700	4,649,500	124,382
	KAU19	3,300,000	4,936,300	32,742	3,300,000	108,048
2020	KAU19	5,997,500	6,493,900	35,114	5,250,400	183,992
	KAU20	3,436,100	2,934,500	21,880	2,921,000	64,297
2021	KAU20	5,956,600	331,900	14,250	301,900	4,974
	KAU21	14,506,600	12,667,300	26,450	10,875,500	289,811
2022	KAU21	9,000,000	3,844,500	25,292	3,813,700	85,833
	KAU22	14,236,000	10,740,300	22,417	9,827,800	231,230
2023-02-08	KAU22	1,000,000	642,000	12,750	642,000	8,186
2023-03-08	KAU22	1,000,000	699,400	12,700	694,400	8,819
2023-04-12	KAU22	1,000,000	806,500	13,200	806,500	10,646
2023-07-12	KAU23	2,150,000	798,500	10,350	795,000	8,347

* 2019~2022년의 낙찰가격은 해당종목의 평균 낙찰가격 기준

** 2023년 5·6월 KAU22 경매 없음

K-ETS in Focus

2023.07.01. ~ 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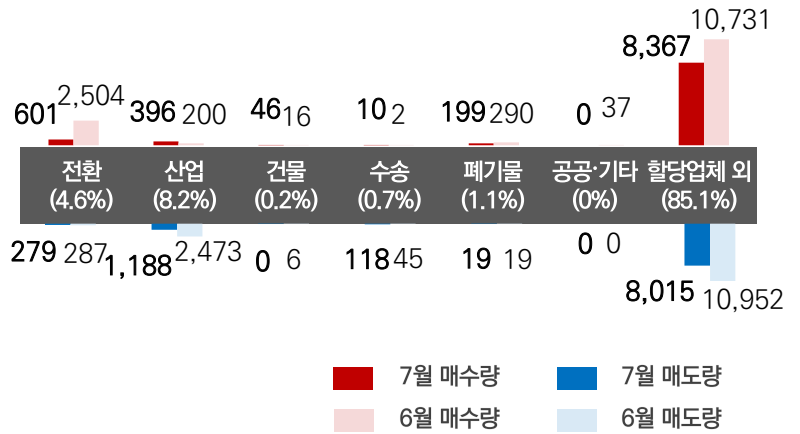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AU22~KAU25 부문별 장내거래 현황

부문명	매수량(톤)	매도량(톤)
전환	600,862	279,331
산업	396,363	1,188,357
건물	46,152	289
수송	10,432	118,006
폐기물	198,733	18,669
공공·기타	-	-
할당업체 외*	8,367,605	8,015,495
합계	9,620,147	9,620,147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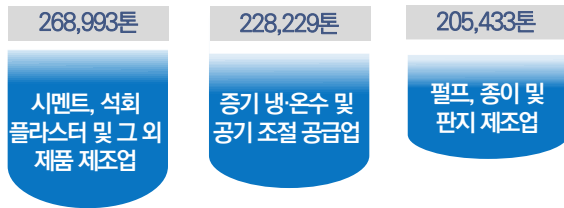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국내 통계

KAU22 업종별 장내거래 현황

DATA

매도 상위 업종



매수 상위 업종

7월 매도량 (Blue) 7월 매수량 (Red)

순위	업종	매도량(톤)	순위	업종	매수량(톤)
	합계	1,604,652		합계	1,250,144
1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외제품 제조업	268,993	1	전기업	577,605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8,229	2	반도체 제조업	227,051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05,433	3	폐기물 처리업	153,193
4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53,834	4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5,540
5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111,036	5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3,645
6	1차철강제조업	108,757	6	종합 소매업	25,071
7	육상 여객 운송업	96,441	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1,661
8	기타*	431,929	8	기타**	166,378

* 전기 통신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전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나무제품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에 해당

** 자동차 부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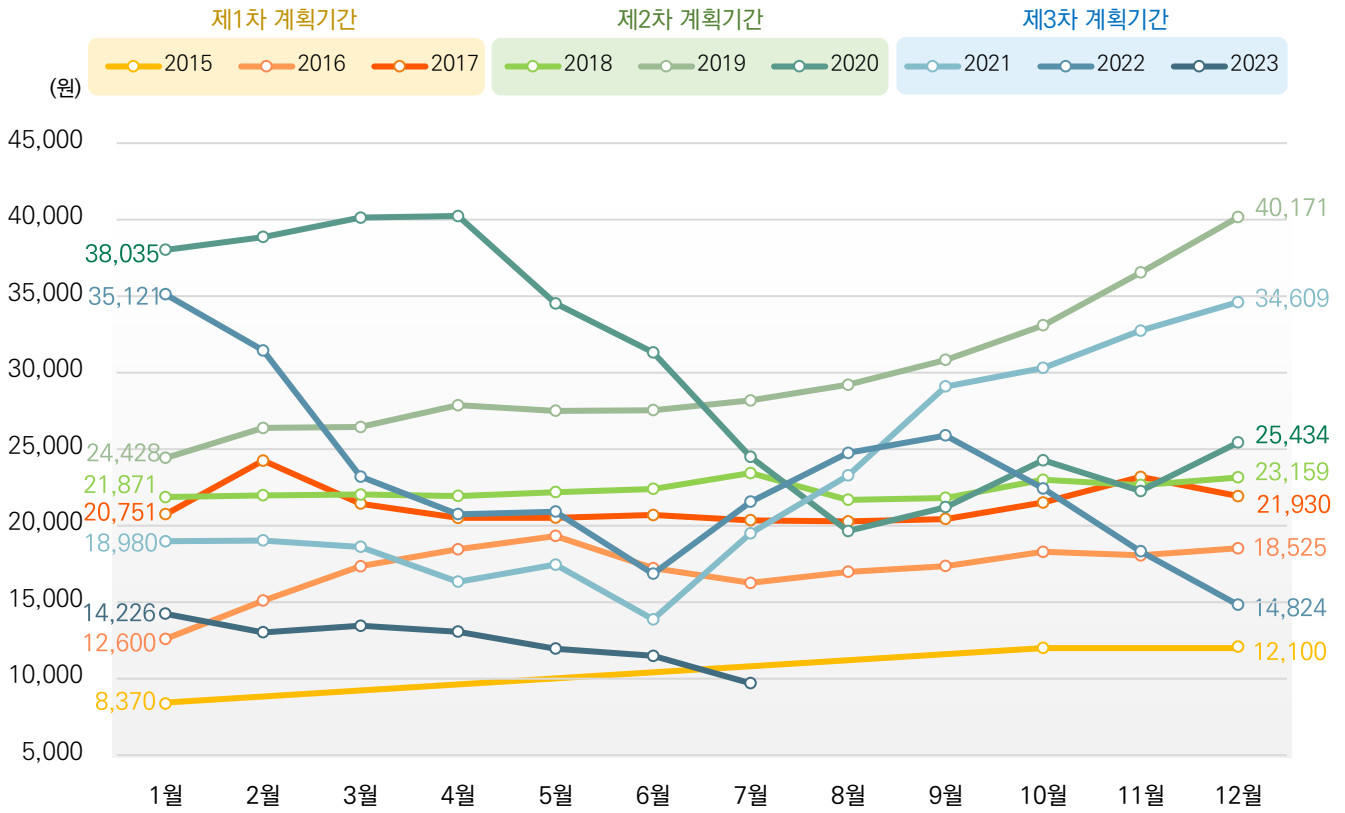
K-ETS in Focus

2023.07.01. ~ 07.31.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현황



구분	월평균가격(원)												연평균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8,370	-	-	-	-	-	-	-	-	12,000	-	12,100	12,028
2016	12,600	15,100	17,349	18,456	19,326	17,223	16,258	16,985	17,364	18,291	18,056	18,525	17,367
2017	20,751	24,254	21,440	20,507	20,522	20,702	20,350	20,276	20,437	21,512	23,184	21,930	21,131
2018	21,871	21,984	22,032	21,945	22,193	22,406	23,435	21,686	21,820	22,997	22,657	23,159	22,237
2019	24,428	26,393	26,450	27,876	27,508	27,553	28,192	29,215	30,835	33,093	36,548	40,171	29,126
2020	38,035	38,867	40,134	40,247	34,532	31,329	24,496	19,649	21,209	24,279	22,264	25,434	29,026
2021	18,980	19,028	18,613	16,338	17,453	13,873	19,502	23,284	29,097	30,310	32,746	34,609	19,709
2022	35,121	31,458	23,203	20,749	20,914	16,854	21,562	24,757	25,894	22,438	18,323	14,824	20,633
2023	14,226	13,024	13,455	13,072	11,955	11,487	9,699	-	-	-	-	-	11,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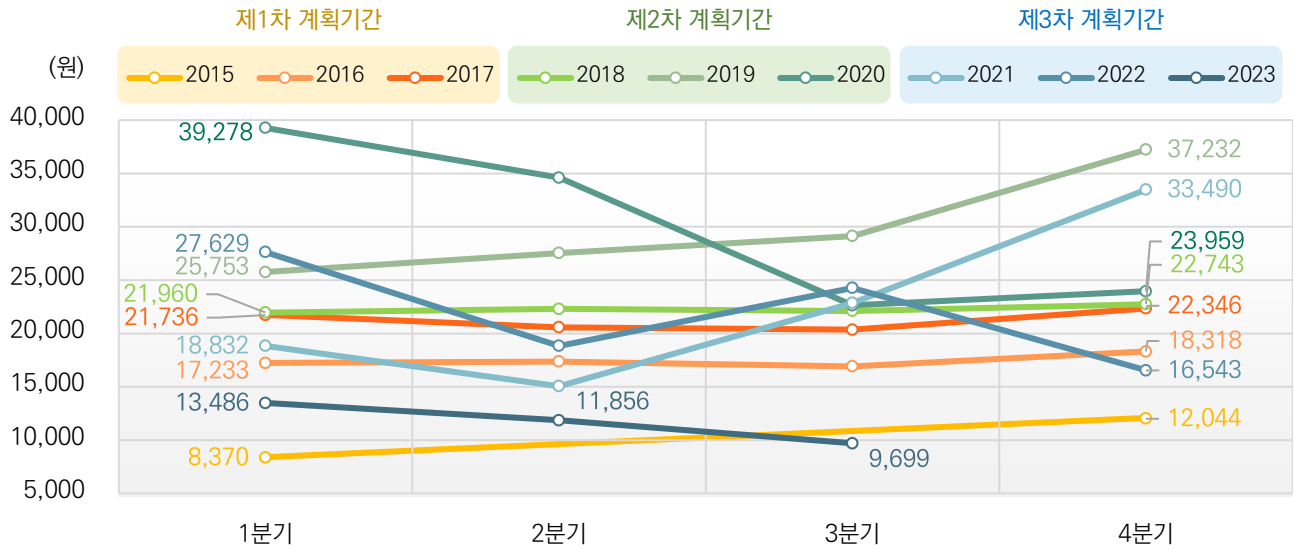
K-ETS in Focus

2023.07.01. ~ 07.31.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배출권(KAU) 장내 평균가격 현황



구분	분기별 평균가(원)				연평균가 (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8,370	-	-	12,044	12,028
2016	17,233	17,371	16,916	18,318	17,367
2017	21,736	20,582	20,357	22,346	21,131
2018	21,960	22,300	22,111	22,743	22,237
2019	25,753	27,548	29,141	37,232	29,126
2020	39,278	34,618	22,642	23,959	29,026
2021	18,832	15,060	22,861	33,490	19,709
2022	27,629	18,843	24,266	16,543	20,633
2023	13,486	11,856	9,699	-	11,506

주요 정보 사이트 ※ 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환경부 · 시장 전반 관리·감독	한국환경공단 ·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관 · 배출권 할당, 배출량 평가, 인증 · 온실가스 감축 참여업체 지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지원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배출권 시세조회(일일거래, 경매) ·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리포트
배출권등록부시스템 · 배출권 제출 및 거래 시스템 · 업체의 배출권할당량, 총량, 보유량 등 확인 가능	상쇄등록부시스템 Offset Registry System · 외부사업 방법론, 외부사업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의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 명세서, 배출량 산정계획서, 할당신청서 등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보고서 제출 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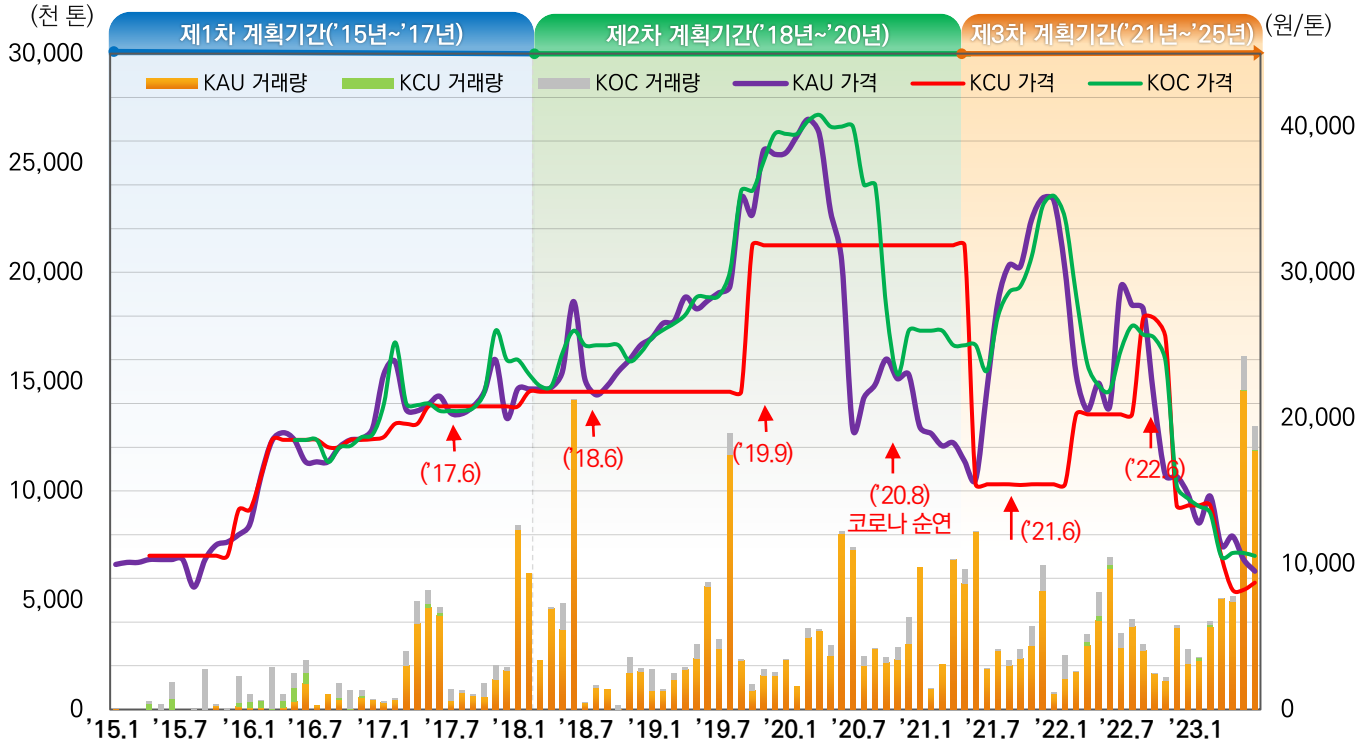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K-ETS in Focus

국내 배출권(KAU, KCU, KOC) 누적 거래현황

DATA

국내 통계



※ 거래량: 장내·외 거래 기준
 ※ 국내 배출권 가격: 해당 배출권 월말 증가
 ※ KOC가격: KOC21-23증가, KOC22-24증가의 산술평균 가격
 ※ 화살표(↑): 배출권 제출 시기

※단위: 거래량(천 톤), 거래대금 (억 원), 평균가(원)

구분	최근 월 거래현황			최근 분기별 거래현황				최근 연거래현황			누적	
	'23. 5월	'23. 6월	'23. 7월	'22.4분기	'23.1분기	'23.2분기	'23.3분기	'21년	'22년	'23년		
KAU	거래량	4,949	14,594	11,853	6,719	8,611	24,622	11,853	48,707	33,205	45,086	271,018
	거래대금	556	1,702	1,078	2,323	2,210	2,939	1,156	11,175	7,496	5,357	61,195
	평균가	11,955	11,487	9,699	16,543	13,486	11,856	9,699	19,709	20,633	11,506	-
KCU	거래량	5	11	16	5	250	26	16	-	695	292	3,490
	거래대금	0	1	1	1	33	3	1	0	149	37	640
KOC	거래량	493	1,552	1,093	287	876	4,020	1,093	6,009	5,240	5,989	38,553
	거래대금	66	203	150	58	184	661	150	1,525	1,111	994	327,977



목차로 돌아가기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3. 07. 31

해외배출권 거래 현황

제도 (System)	원 / 톤	전월비* (원/톤) / 등락률 (%)
EU-ETS		
- EUA(현물)	120,189 (85.16 EUR) 2023.07.31	▼ 2,837 ▼ 2.31
- EUA(선물)	122,320 (86.67 EUR) 2023.07.31	▼ 3,401 ▼ 2.71
- EUA(경매)	122,292 (86.65 EUR) 2023.07.31	▼ 1,891 ▼ 1.57
영국(선물)	74,865 (45.50 UKA) 2023.07.31	▼ 13,821 ▼ 15.58
캘리포니아(경매)	38,822 (30.33 USD) 2023.05.17	▲ 3,174 ▲ 8.90
RGGI(경매)	16,294 (12.73 USD) 2023.06.07	▲ 294 ▲ 1.84
뉴질랜드(현물)	47,278 (60.00 NZD) 2023.07.31	▲ 14,971 ▲ 46.34
중국 국가단위ETS	11,555 (64.74 CNY) 2023.07.31	▲ 846 ▲ 7.90

* 기준 : 전월('23.6.30.) 증가 대비 당월('23.7.31.) 수치 비교

※ 영국 : 브렉시트 이후 EU-ETS를 대체하기 위해 UK-ETS를 2021년부터 발효했으며, 적용부문은 에너지집약산업, 발전부문, 항공부문 등을 대상으로 함.

※ 캘리포니아 :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등 2개주의 발전, 산업, 연료공급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연 4회 경매 실시.

※ RGGI : 미국 북동부 11개 주의 25MW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총량거래방식 시장으로 100% 경매(유상할당)로 이루어짐.

※ 뉴질랜드 : 산림, 에너지, 수송, 산업공정, 농업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현물거래 정보 제공.

※ 중국 국가단위 : 2013~2019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6,000톤 이상인 전력부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무상할당으로 이루어짐.

환율	
1EUR	1,411.33원
1UKA	1,645.38원
1USD	1,280.00원
1NZD	787.97원
1CNY	178.49원

해외통계

해외 배출권 거래 현황 확인 사이트

- EU-ETS
현물 (일별), 경매: EEX 23 DEC 선물: ICE
- 영국 ETS
선물 (일별)
- 캘리포니아 ETS
현물 경매 (3개월 주기)
- RGGI
현물 경매 (3개월 주기)
- 뉴질랜드 ETS
현물 (일별)
- 중국 ETS
현물 (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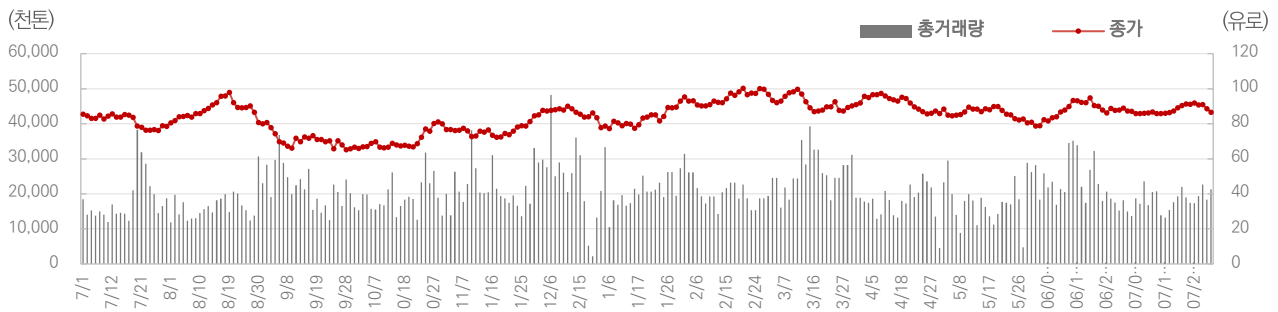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3. 07.31

선물시장(EUA Futures DEC 23) – ICE 거래소 기준

	'23년 6월	'23년 7월	
종가	89.08유로 (125,721원)	86.67유로 (122,320원)	▼ 3,401원
평균가	87.65유로 (123,697원)	88.02유로 (124,230원)	
최고가	94.85유로 (133,865원)	91.93유로 (129,744원)	
최저가	78.72유로 (111,100원)	85.81유로 (121,106원)	
총거래량	509,650톤	383,227톤	▼ 126,423톤



현물시장(EEX EUA Spot) – EEX 거래소 기준

	'23년 6월	'23년 7월	
종가	87.17유로 (123,026원)	85.16유로 (120,189원)	▼ 2,837원
평균가	85.76유로 (121,029원)	86.36유로 (121,878원)	
최고가	92.82유로 (131,000원)	90.25유로 (127,373원)	
최저가	76.98유로 (108,644원)	84.08유로 (118,665원)	
총거래량	3,064,000톤	1,452,000톤	▼ 1,612,000톤

경매시장(EUA Primary Auction Spot) – EEX 거래소 기준

	'23년 6월	'23년 7월	
종가	85.31유로 (120,401원)	86.65유로 (122,292원)	▲ 1,891원
평균가	85.03유로 (120,001원)	86.30유로 (121,794원)	
최고가	91.67유로 (129,377원)	90.30유로 (127,443원)	
최저가	78.20유로 (110,366원)	83.62유로 (118,015원)	
총거래량	46,367,500톤	47,664,000톤	▲ 1,296,500톤

EU-ETS 거래량 감소

유럽 배출권거래제 7월 EUA선물 가격은 지난 6월 종가 대비 2.71%(약 € 2.41/3,401원) 감소하였고 EUA 거래량도 24.81% 감소하였다.

Global ETS in Focus

※ 환율 기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3. 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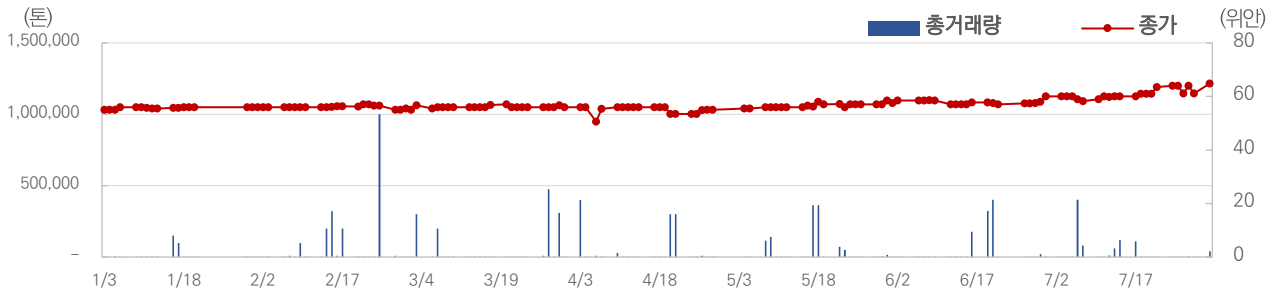
목차로 돌아가기

중국 국가단위 통합 탄소배출권

중국 국가단위 통합 탄소배출권 거래량 감소

중국 전국 통합 탄소배출권 7월 종가는 11,555원으로 6월 종가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당월 총 거래량은 847,544톤으로 전월 대비 약 9.35%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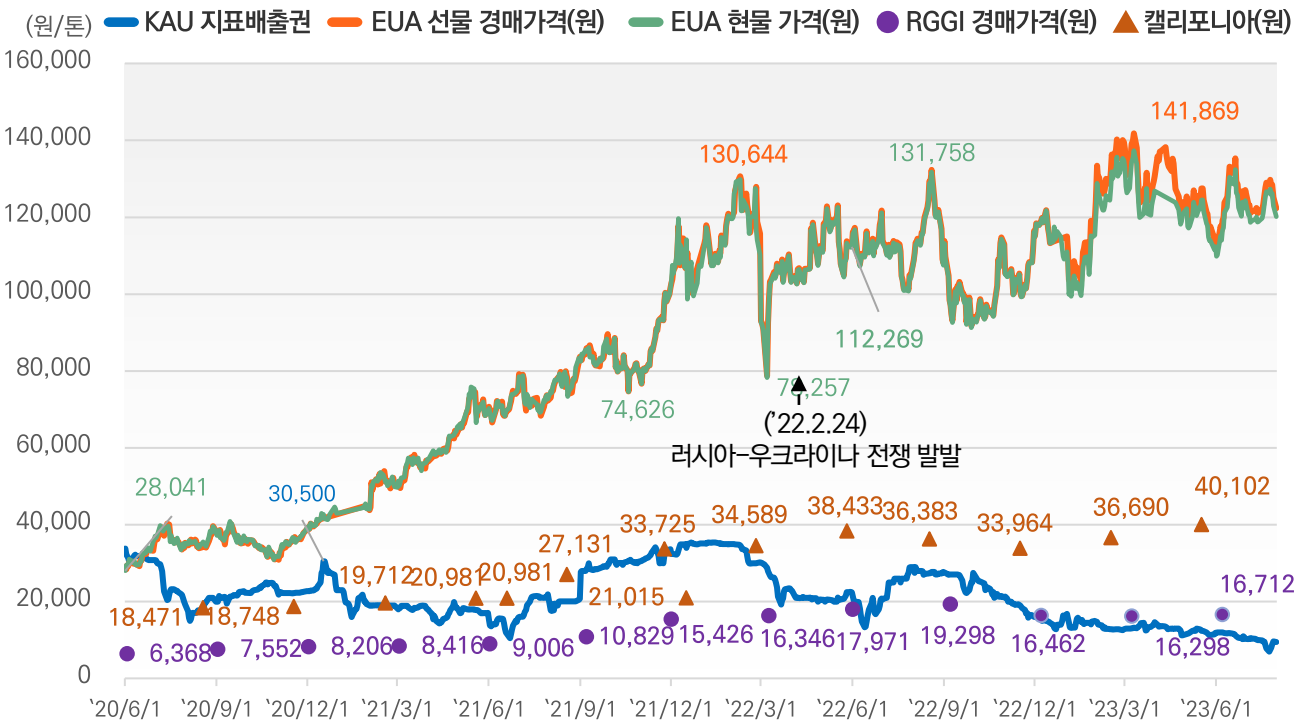
	'23년 6월	'23년 7월	
종가	60.00CNY (10,709원)	64.74CNY (11,555원)	▲ 846원
평균가	57.82CNY (10,320원)	61.01CNY (10,890원)	
최고가	60.00CNY (10,709원)	64.74CNY (11,555원)	
최저가	57.00CNY (10,174원)	58.17CNY (10,383원)	
총거래량	935,004톤	847,544톤	▼ 87,460톤



해외통계

국가별 배출권 가격 비교

DATA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기후변화 동향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 5,450만톤 예상

-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공개하는 것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
- 주요 감소 원인은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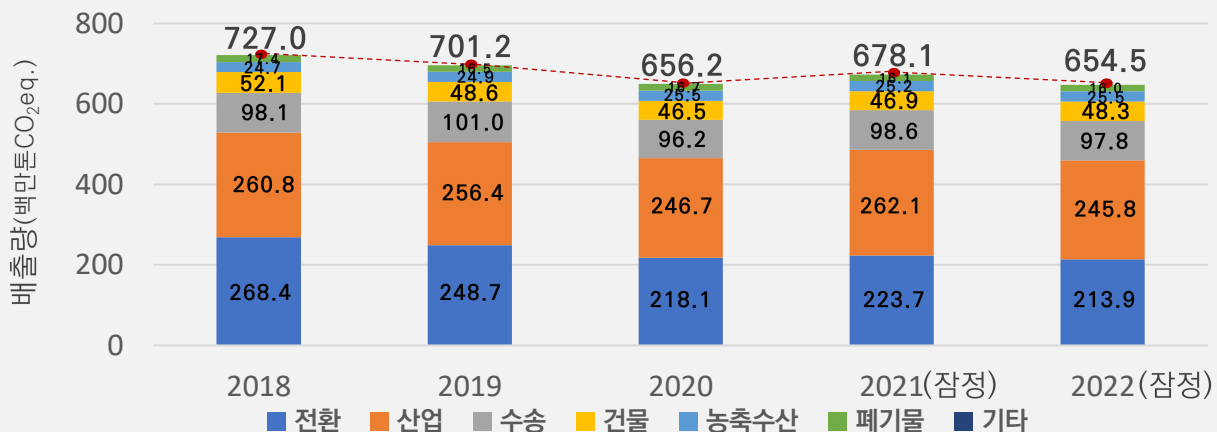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한 것이다.

*2022년 실질 국내총생산 1,968.8조원, 2021년 실질 국내총생산 1,918.7조원 (한국은행)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톤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2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970만톤, 산업 부문에서 1,630만톤, 수송 부문에서 80만톤, 폐기물 부문에서 10만톤이 각각 감소했다. 반면,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30만톤이 각각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며,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추이('18년~'22년)



국내 에너지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기후변화 동향

부문	세부 내용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회복으로 상업용 전력수요 증가하며 총발전량 전년 대비 3.0% 증가 원자력·신재생 증가, 석탄·LNG 감소 등 에너지믹스 개선* *원자력 11.4% ↑, 신재생 23.4% ↑, 석탄 2.4% ↓, LNG 2.9% ↓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유연탄 소비량 감소** *’22년 철강재 수출량 (’20)28.9→(’21)27.1(-6.1%)→(’22)25.7(-5.3%)백만톤 **’22년 조강(전로강+전기로강)
석유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등에 따라 석유화학업 생산활동 감소 *제품(합성수지·원료·고무) 수출량 (’20)12,046 → (’21)12,320 → (’22)12,092천톤
석유 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제품 가격 상승*, 수출량 증가** 등에 따라 석유정제업 생산활동이 증가하며 중유, 부생가스 등 연료소비량 증가 *주요 석유제품 가격 상승(휘발유 81.2 → 112.8 USD/bbl, 경유 77.8 → 132.7 USD/bbl) **석유제품 수출량 (’20) 62,534 → (’21) 59,893(-4.2%) → (’22) 64,881(+8.3%) 천톤
비금속 광물 (시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설비(소성로) 가동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클링커 생산량 감소 (’20) 33.2백만톤 → (’21)34.5(3.8% ↑) → (’22) 34.3(0.7% ↓)
반도체·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의 지속적 감축노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 감소 (’20) 5.9백만톤 → (’21) 6.1(3.6% ↑) → (’22) 4.5(25.8% ↓)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공공)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로 도시가스 소비량 감소 (가정) 겨울철 평균기온 하락에 따른 난방도일* 상승으로 도시가스 소비량 증가 *일평균기온이 기준온도(18℃) 이하인 날의 일평균기온-기준온도 차이값을 누적 합산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발유 소비량 증가에도 유가상승에 따른 경유 소비량 감소 및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 연료 소비량 감소
농축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한육우(4.1% ↑), 닭·오리(2.5% ↑) 등 가축 사육두수 증가 (벼재배) 벼 재배 면적이 지속 감소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량은 소폭 증가했으나 관리제도* 시행으로 분해될 수 있는 누적 매립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배출 *1995년 종량제 봉투 정책, 2005년 유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수십년 동안 천천히 분해되어 온실가스 발생

※ 참고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home/main.do>)

국내 동향



국내 기후변화 동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1. '22년도 배출권 (KAU22) 최저거래가격 설정

지난 7월26일 '22년도 배출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저거래가격(7,020원)을 설정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적인 형성을 위하여 환경부가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2년도 배출권 거래가 종료되는 '23년 8월 31일까지 유지되나, 설정된 최저거래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이 5일 이상 유지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지난 8월2일(종가 8,270원) 해제되었다. 다만, 가격이 다시 하락하여 당초 설정된 최저가격 이하가 될 경우 하락한 당일의 종가를 최저가격으로 하여 다음날부터 재설정된다.

2. 우리나라의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기준 및 방법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기준은 아래의 네가지 경우가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 ① 추가할당, ②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 설정, ③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배출권의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 (최저거래가격 발동)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기후변화 동향

국내 동향

3. 해외 사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EU)과 미국, 뉴질랜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간략하게 소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유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ETS의 MSR(Market Stability Re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배출권 과잉 공급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통물량을 관찰한 후 배출권의 공급량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톤~8.33억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 → 공급물량이 4억톤 이하일 경우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 8.33억톤 이상일 경우 다음 연도에 기업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
<p style="text-align: center;">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 상·하한 가격의 사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게시 - (하한가격)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 인상 - (상한가격)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 인상 - 시장가격이 각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배출권 구매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뉴질랜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 상한가격의 사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9/10 기준 톤당 17.8달러 수준)을 사전 제시 -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정부 판매분 구매 선택 옵션 제공 -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기업은 상한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이 가능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

※ 참고자료: 환경부 (<https://me.go.kr/home/web/main.do>), 대한상공회의소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21.09.13.)



목차로 돌아가기

국내 기후변화 동향

국내 기후 소식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
측정·관리 체계적 지원



기업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 추진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Scope 3 배출량 산정,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대응 민관 협력 →

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본회의 표결 통과



유럽의회는 6월 1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CSDDD)(안)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 →

탄소 배출권 거래 세계
최대시장 EU...2년 새 가격
4배 급등



가격 하락하는 韓과 달리
유럽은 증권사·개인 투자 활발 →

"천연가스, 2030년대 후반
수요 정점...CCS가 미래 항방
가른다"



"탄소중립 달성의 유력한 수단 천연가스,
CCS 상용화 통해 블루수소 생산 활용될 것" →

기후변화센터-, 국내 자발적
탄소감축시장 활성화 추진



기후변화센터, GCC와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철강업계, '탄소중립 발등의
불' 저탄소 제품 대폭
늘린다



'탄소 고배출' 산업인 철강업계...
당장은 전기로 사용 늘려 저탄소 제품 내놓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 →

국내 기후



해외 기후변화 동향

Issue *in* focus

G20 에너지 장관회의, 환경 및 기후 장관회의 결과

G20(1) >

G20(2) >

G20(3) >

환경부 >

EC >

Euronews >

G20¹⁾ 의장국²⁾인 인도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³⁾’라는 주제 하에 G20 정상회의를 9월에 개최 예정이다. 인도는 올해 정상회의 前 환경, 재무 등 16개 이슈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에너지 장관회의와 환경 및 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G20 에너지 장관회의



사진 출처: G20 의장국 인도 공식 누리집

지난 7월 22일 G20 에너지 장관회의가 인도 고아에서 개최되었다. G20 회원국⁴⁾ 및 초청국⁵⁾의 에너지 장관들과 다자개발은행, 국제에너지기구,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청정·지속가능·공정·적절한 에너지 전환의 실현을 목표로, G20 회원국 간 책임감과 연대를 공유·협력·구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불일치로 공동성명 대신 결과 성명서와 의장 요약문이 발표됐다. 결과 성명서에는 △에너지 안보 및 다양한 공급망,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 △에너지 전환의 기술적 격차, △미래를 위한 연료 등의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 1) G20 국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아르헨티나, G20 국가는 세계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
- 2) (G20 의장국) '22년 인도네시아, '24년 브라질(예정), '2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예정)
- 3) '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 지구와 하나로 연결된 인간·동·식물 등 모든 생명체의 존중과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며, 고대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유래
- 4) 프랑스·러시아·멕시코는 화상으로 참석
- 5) 방글라데시, 덴마크, 이집트, 모리셔스, 네덜란드, 오만, 싱가포르, 스페인 등



해외 기후변화 동향

특히, G20 에너지 장관들은 ‘G20 고위급 자발적 수소 원칙⁶⁾’에 동의했고, 암모니아와 같은 파생물 또는 무·저공해 기술로 생산된 수소의 활용 및 거래를 장려하여 전 세계적인 넷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G20 고위급 자발적 수소 원칙 〉

- 국가 표준 개발에 협력 장려, 암모니아와 같은 파생물 또는 무·저공해 기술로 생산된 수소⁷⁾ 인증에 전 세계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
- 암모니아와 같은 파생물 또는 무·저공해 기술로 생산된 수소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장려
- 기술혁신, 비즈니스 모델 및 R&D 협업을 가속화하여 국제협력 강화
- 암모니아와 같은 파생물 또는 무·저공해 기술로 생산된 수소의 생산·활용·글로벌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장려, 재정 동원 및 인프라 개발
- 암모니아와 같은 파생물 또는 무·저공해 기술로 생산된 수소에 대한 자발적 정보 공유, 협력, 대화, 지식 교환 및 역량 강화 지원

G20 환경 및 기후 장관회의



사진 출처: G20 의장국 인도 공식 누리집

한편, 지난 7월 28일 G20 환경 및 기후 장관회의가 인도 첸나이에서 개최되었다. 국가별 대표(장관급) 41 명 과 G20 회원국, 초청국⁸⁾, 유엔환경계획·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을 포함한 23개 국제기구 대표 등 225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했다.

동 회의는 △기후행동, △토지 황폐화,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통합 수자원 관리, △청색/해양기반 경제, △자원효율성 및 순환 경제 촉진을 주요 의제로 개최되었다.

지난 G20 에너지 장관회의에 이어 금번 장관회의에서도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용량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비롯한 68개의 논의 내용 중 4개 내용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성명이 아닌 결과 성명서 및 의장 요약문을 발표했다.

6) G20 High Level Voluntary Principles on Hydrogen

7) Hydrogen produced from zero and low emission technologies and its derivatives such as ammonia

8)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오만, 싱가포르, 스페인, UAE



해외 기후변화 동향

환경 및 기후 장관들은 1.5°C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했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BBNJ⁹⁾)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2030년까지 육지 및 해양 지역 30%의 보호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플라스틱·화학물질·폐기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참고] '23년도 G20 장관회의 일정

구분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2월	제1차 재무장관회의	2.23-25	뱅갈루루
3월	외교장관회의	3.1-2	뉴델리
4월	제2차 재무장관회의	4.20	워싱턴
6월	농업장관회의	6.17	하이데라바드
	관광장관회의	6.21-22	고아
	교육장관회의	6.28	부네
7월	연구장관회의 ^{신설}	7.6	뭄바이
	노동·고용장관회의	7.21	인도르
	에너지장관회의	7.22	고아
	환경·기후장관회의	7.28	첸나이
8월	보건장관회의	8.4	간디나가르
	여성권능강화 장관회의	8.9-11	간디나가르
	보건-재무장관 합동회의	미정	-
	디지털경제장관회의	8.19	뱅갈루루
	개발장관회의	8.21	바라나시
	개발-외교장관 합동회의	8.22	바라나시
	문화장관회의	8.23	아그라
	무역투자 장관회의 ^{신설}	8.24-25	자이푸르
9월	재무-에너지장관 합동회의	9.8	뉴델리
	G20 정상회의	9.9-10	뉴델리
	재무-환경장관 합동회의	11.16-17	UAE(COP28 계기)

9)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해외 기후변화 동향

GCF 이사회, 전략계획 채택 및 7.6억 달러 규모의 기후사업 지원 승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GCF\(1\) >](#)[GCF\(2\) >](#)

제3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7.10~13, 4일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향후 4년간('24~'27년)의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은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12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승인되었다.

전략계획 채택

'24~'27년 전략계획은 GCF 이사회의 공동 의장 및 사무국이 주도한 14개월의 과정 끝에 채택되었다. 전략계획에 기반하여 ①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역량 강화, ②기후요소를 고려한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③기후적응력 제고, ④민간 부문 참여 촉진 등 4개 과제를 이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동 전략은 올해 10월 마무리되는 GCF 2차 재원보충¹⁰⁾의 성공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승인

이사회가 12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신규 승인했다. 38개국 이상 개도국에 총 약 31.9억 달러(약 4조 원)가 지원될 예정이며, 약 3.8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로써 GCF 승인 사업은 총 228건, 총 사업 규모는 약 482억 달러(GCF 지원액 128억 달러)로 확대된다.

한편, 차기 GCF 이사회는 '23.10.23~26, 조지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 회원국 정부 등으로부터 공여를 약속받는 재원 조달 절차로,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이후 총 203억달러(초기 103억달러, 1차 재원보충 100억달러)를 조성하여 개도국 기후사업을 지원중



해외 기후변화 동향

[참고] GCF 제36차 이사회 승인 사업 현황

국가	사업명	인증기구	분류	GCF 요청액 (백만 달러)	공동 금융지원 (백만 달러)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취약 연안 지역의 농장 및 생계 탄력성 지원 사업	팔리 카르마 사하약 재단 (PKSF)	적응 공공	42.2	49.9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통합 홍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생태계 기반 적응 및 녹색 인프라 구축 사업	세계자연기금 (WWF)	적응 공공	66.0	77.8
아이티	아이티 트와리비에르 지역의 통합 홍수 관리를 통한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유엔개발계획 (UNDP)	적응 공공	22.4	31.3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자원 재사용 프로그램을 통한 기후회복력 증진사업	남아프리카 개발은행 (DBSA)	적응 공공	235.0	1,472
코트디부아르 등 7개국	KawiSafi 벤처사업 II	아큐먼펀드 (ACUMEN)	교차 민간	52.5	210.0
베닌 등 16개국	저탄소·에너지접근성 강화 사업	아큐먼펀드 (ACUMEN)	교차 민간	65.0	250.0
브라질 등 11개국	지속가능 농업 생태계 구축 및 산림보호 투자 사업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 (FMO)	교차 민간	189.4	981.6
바베이도스	국책기후은행 설립 및 운영사업	페가수스 캐피탈 어드바이저 (PCA)	교차 민간	15.5	30.5
방글라데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 사업	팔리 카르마 사하약 재단 (PKSF)	적응 공공	25.0	30.0
솔로몬제도	솔로몬 제도의 기후 탄력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지식·행동·지속가능성 (SOLKAS) 사업	세이버드칠드런 호주 (SCA)	적응 공공	25.0	31.8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포로 지역 여성 및 청년 중심의 소규모 농부 공동체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사업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적응 공공	9.0	10.0
마살제도 등 3개국	북태평양 군소도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적응사업	마이크로네시아 보전 신탁 (MCT)	적응 공공	8.9	9.9
지원요청 총액(백만 달러)				755.8	3,184.8



해외 기후변화 동향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후 이니셔티브 수립!

[Bloomberg >](#)[Financial Times >](#)

지난 7월 18일, 미국·유럽집행위원회·일본·한국·호주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3 LNG 생산자-구매자 회의 (LNGPCC¹¹⁾'에 참석했고, 액화천연가스(LNG)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메탄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원문보기](#)

미국·유럽집행위원회·일본·한국·호주는 '넷제로를 향한 LNG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합(CLEAN¹²⁾'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동 이니셔티브 참석자¹³⁾들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천연가스 및 LNG 가치 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함에 공감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동 이니셔티브는 LNG 생산자의 메탄 배출량 감축을 장려한다”며, “더 청정한 LNG 가치 사슬을 형성하기 위한 LNG 구매자들의 전례 없는 협력”이라고 밝혔다. 이니셔티브 참가국들은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 데이터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글로벌 메탄 공약에 대한 약속도 재차 확인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계획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NG 가치 사슬에서 메탄의 우발적·의도적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 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 2023

12) coalition for LNG emission abatement towards net zero

13)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저스틴 헤이허스트 주일 호주대사, 디트 유올 요르겐센 유럽집행위원회 에너지국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등 참석



해외 기후변화 동향

스페인, 2023-2030 에너지 및 기후 계획 초안 발표

[스페인 정부 >](#)[EURACTIV >](#)[Reuters >](#)[Climate Home News >](#)

스페인 정부는 2023-2030 에너지 및 기후 목표(2023-2030 NECP¹⁴⁾) 초안을 발표했다. 동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32%까지 줄여, 기존 목표¹⁵⁾ 대비 9%p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 계획은 2030년까지 △녹색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해질 목표치를 4GW에서 11GW로 증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존 대비 두 배 늘린 20TWh를 목표로 한다. 또한, △풍력발전 발전 용량을 50GW에서 62GW로, △태양광 발전 용량을 약 76GW로, △전력 저장 용량은 22GW로 목표치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국가 전력의 81%를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는 9월 4일까지 지속되며, 최종 계획은 내년 6월 이후 발표 예정이다.

스위스, 신규 기후 행동 승인

[스위스 정부 >](#)[Euronews >](#)[DW >](#)[Swissinfo >](#)[Reuters >](#)[CNN >](#)

스위스 유권자들은 59%의 찬성률로 기후 혁신 행동 (The Climate and Innovation Act) 을 통과시켰다.

기후 보호법으로도 불리는 동 법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년까지 스위스의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스위스는 현재 에너지의 약 75%를 수입하며 대부분 원유, 가스 및 석탄이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화석연료는 무한정 이용할 수 없고, 기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법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기후 친화적인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스위스 정부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10년 동안 20억 스위스 프랑(약 3조 원)을 약속했고,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14) 2023-2030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15)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23% 감축



해외 기후변화 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신규 의장 선출

IPCC >

BBC >

Reuters >

The Guardian >

D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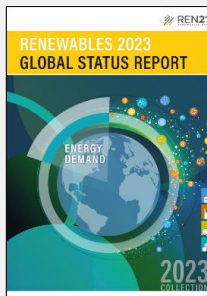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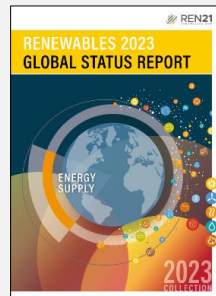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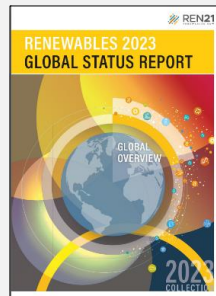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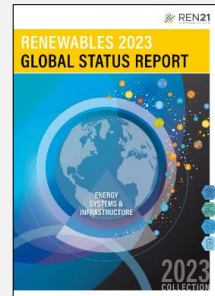
사진 출처: IPCC

지난 7월 26일, 영국 짐 스키아¹⁶⁾(Jim Skea) 교수가 90표 대 69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신규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약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우리나라 이회성 전 IPCC 의장 이후의 7번째 평가 주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스키아 교수는 “겸손하고 깊은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기후변화는 우리 행성에 실존하는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고 말했다. 또한, 7번째 평가주기 동안 세 가지 우선순위 (△포괄성 및 다양성의 증대, △IPCC 평가보고서의 과학적 무결성 및 정책적 유효성 보호, △기후변화 대응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을 효과적으로 활용)를 추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N21,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 발간!

REN21 >

보고서
원문보기보고서
원문보기보고서
원문보기보고서
원문보기보고서
원문보기

2022년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기였다. 2021년에 비해서는 완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급격한 경제 반등은 에너지 가격의 추가적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REN21은 “20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5개의 발행물 모음집¹⁷⁾으로 발간하여 재생에너지 미래를 형성하는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추세를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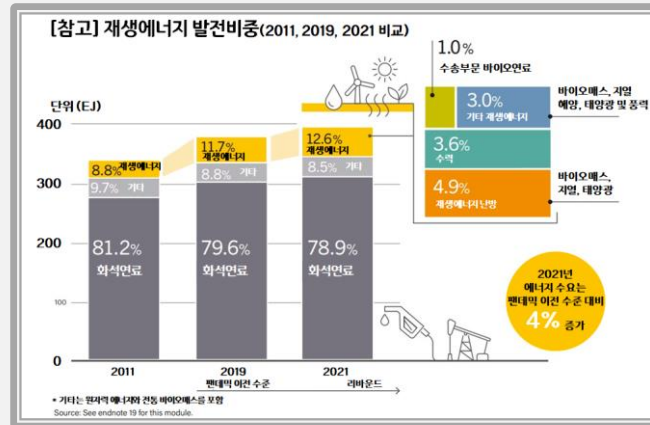
16) 영국 스코틀랜드 Dundee 출신 과학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교수, IPCC 6차 평가 주기 동안 기후변화 완화 작업그룹의 공동의장 역임

17) REN21은 2005년부터 재생에너지 글로벌 현황 보고서(GSR)를 연례 보고서로 발간해왔으며, 올해는 수 백명의 전문가의 공동 작업으로 5종의 간행물을 모아놓은 형태로 발간



목차로 돌아가기

해외 기후변화 동향



5개의 발행물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수요,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인프라로 구성된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

- 2022년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인구수가 수십 년 만에 증가
- 재생에너지 도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1년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TFEC,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였고, 화석연료는 78.9%, 원자력 및 전통 바이오매스는 8.5%에 머무름
- 국가 정부들이 재생에너지의 사회·경제적 이점을 인정하는 추세
- 재생에너지 배치 가속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의해 뒷받침되는 에너지 시스템과 전기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

재생에너지 수요

-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적당한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최종 사용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4대 핵심 수요 부문에서 모두 증가(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산업 부문 16.8%, 건물 및 농업 부문 각각 15.5%, 수송 부문 4.1%)
- 수송 부문의 전기화와 탈탄소화가 필요: 수송 부문은 가장 작은 전기화 비중(1.4%)을 차지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소비 부문(연간 2% 성장)



해외 기후변화 동향

재생에너지 공급

- 재생에너지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주요 기술과 지역에 한정
- 가장 큰 재생에너지 성장을 보인 전력 부문(재생에너지가 2022년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
- 전력 부문에 집중된 정책적 인센티브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연간 재생가능 전력 추가량의 대부분을 차지(2022년 92%를 차지)
- 재생에너지 공급으로의 전환은 지역별로 불균등(2022년에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주도, 유럽이 11%, 미국이 10%로 그 뒤를 이었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재생에너지 투자의 합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의 1.6%에 불과함)
-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 일자리·에너지 접근성·지역가치 창출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보여준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배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
- 2021년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증가로 사상 최대인 1,270만 개의 일자리 달성
- 오프그리드 재생 기반 시스템(Off-grid renewable-based systems)을 통해 전기에 접근하는 사람은 2012년 1,900만 명에서 2021년 4,100만 명으로 두 배 증가
- 국가들은 세금 인센티브, 경매, 가공되지 않은 광물 수출 금지 등의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제조에 대한 공급망 강화 계획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인프라

- 총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 덴마크 61%(풍력 발전 55%, 태양광 발전 6%), 우루과이 36%(풍력 발전 33%, 태양광 발전 3%), 포르투갈 35%(풍력 발전 28%, 태양광 발전 7%), 그리스 34%(풍력 발전 21%, 태양광 발전 13%)
- 전 세계 에너지 용량 투자는 2022년 46%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157억 달러(약 20조 원) 기록
- 전 세계 총 수력 발전 저장 용량은 2022년 10.5GW 증가하여 175GW 기록,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용량은 총 11GW 기록



해외 기후변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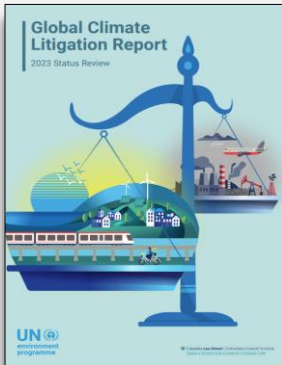
기후소송, 기후행동을 이끄는 핵심수단

UNEP >

U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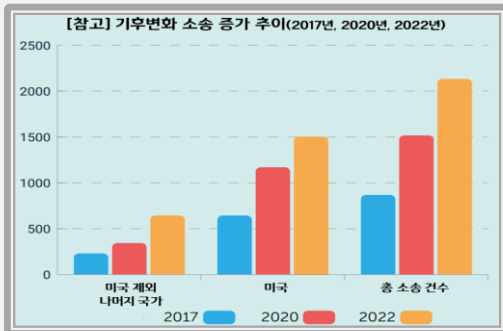
IISD >

Reuters >


[보고서 원문보기](#)

지난 7월 27일, 유엔환경계획(UNEP¹⁸)과 콜롬비아대학의 사빈 센터¹⁹)는 지난 5년간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담긴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²⁰”을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후 관련 소송은 2,180건으로, 기후소송에 대해 처음 보고된 2017년(88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기후소송이 기후행동과 기후정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추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이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에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며, “사람들이 점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려 정부와 민간 부문에 책임을 묻고, 기후소송을 기후행동 및 기후정의를 확보하는 핵심 매커니즘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후소송 중 미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약 70%(1,522건)를 차지했고, 다른 국가들의 기후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소송의 비율은 26%에서 30%로 증가했고, 이중 개도국에서는 전체 사건의 약 17%가 제기되며 기후소송이 발생하는 지리적 범위와 소송 사례의 건수와 다양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진행 중인 기후소송을 6가지 주요 유형의 사례(△기후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국제법 및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에 의존하는 사례 증가, △기후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국내 미집행에 이의제기, △화석연료와 탄소 흡수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기후정보공시 확대 및 그린워싱 중단 지지, △기후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추궁, △기후변화 영향 적응 실패)로 분류했다 또한, 법원이 인권과 기후변화를 어떻게 관련짓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책임감·투명성·정의를 확대하여 취약 계층의 보호와 더불어 정부와 기업이 더 야심찬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목표를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18)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19) 콜롬비아 대학의 기후변화 법을 위한 사빈 센터, 동 연구 결과는 사빈 센터의 미국 및 지구 기후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집된 소송 자료를 기반으로 함

20) 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

구독자 QUIZ!

| 지난 호 정답 | 암모니아
|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선물 발송 | 2023.8.4
| 이번 호 이벤트 마감 | 2023.9.3

다음 중 2022년 잠정배출량이 증가한 부문으로 옳은 것은?

①전환 ②산업 ③수송 ④폐기물 ⑤건물

정답 찾으러가기 >

정보지 활용조사

정보지 공유, 인용사례 등 활용실적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커피&디저트 기프트콘"** 증정!

<예시> 기관 공유 사례 증빙 캡처

자료명	번호	제목	호출수	등록일
ETS INSIGHT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3.03호 권	1		2023.11.23	
ETS INSIGHT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2023.09호 권	1		2023.10.28	

이메일

etsinsight@keco.or.kr
(기프트콘 받으실 휴대폰 번호 기재 후 송부)

※ 정보지 만족도조사, 정보지 활용도 조사는 구독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구독신청이나, 상품 제공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정보지 설문조사

정보지 만족도 조사 진행 후,
정보지 월간 퀴즈 응모 시
정답자 중 20분께
"커피 기프트콘" 증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ETS INSIGHT 는

보다 실속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정보지 설문조사 바로가기

※ 만족도 조사 결과는 본 조사 목적 외 다른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지 모바일 채널

Ch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정보지 안내사항

본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저작권이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저작물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본 정보지의 상업적 이용 혹은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소유하지 않은 저작물 (전문가기고, 인터뷰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022년도 배출권(KAU22) 이월·차입 및 제출 안내

▶ 이월·차입 신청기간 '23년 6월 1일 ~ '23년 8월 30일 13:00 ~ 17:00 / '23년 8월 31일 13:00 ~ 16:00 (주말·공휴일 제외)

▶ 이월한도 '22년도 배출권(KAU22)과 상쇄배출권(KCU22)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2배

- 순매도량 상관없이 모든 업체 100톤 미만 잔여량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일 전날까지의 거래량(매도·매수량 기준)으로 순매도량 산정

(예시) 8월26일까지의 순매도량이 100톤인 업체가 8월27일 오전에 500톤을 매도한 후, 오후에 이월 신청한 경우

☞ 8월 26일까지의 순매도량인 100톤의 2배인 **200톤까지만 이월 가능**

▶ 차입한도 해당 업체가 배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에 {①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 (②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0.5)}를 곱한 값 이내

(예시) A업체가 '21년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인증량)의 8%를 차입한 경우

①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 한도 → '21년도 차입 한도인 15%

②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업체가 전년도에 차입한 비율인 8%

$$\text{'22년도 배출권 차입 가능수량} = \text{'22년도 배출권 제출수량(인증량)} \times (\text{'21년도 차입한도 15\%} - \text{'21년도 실제 차입량 비율 8\%} \times 0.5)$$

☞ A업체는 '22년도 배출권 제출수량(인증량)의 11%(0.15-(0.08×0.5))까지 차입가능

배출권의 제출

▶ 제출신고 기간 '23년 6월 1일 ~ '23년 8월 30일 13:00 ~ 17:00 / '23년 8월 31일 13:00 ~ 16:00 (주말·공휴일 제외)

▶ 제출 가능한 배출권 KAU22, KCU22, i-KCU22

▶ 상쇄배출권(KCU) 제출한도 '22년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인증량)의 5%까지

▶ 배출권 소멸 제출기한까지 처리(제출, 매도 등)하지 않은 배출권은 소멸

배출권의 거래

현재 모든 배출권 종목(KAU22~KAU25, KCU22, i-KCU22 등) 거래가 가능하며, 2022년도 배출권(KAU22)은 배출권 제출기한인 '23년 8월 31일까지 거래가 가능함.

※ KAU21은 거래 종료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출신고 방법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으로 배출권 제출신고 및 이월·차입 신청서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이월·차입 및 제출 바로알기 바로가기



ETS INSIGHT

Emissions Trading Scheme &
Carbon Market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탄소 시장 정보지



본 정보지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 또는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etsinsight@keco.or.kr

한국환경공단 기후정책지원부 climate4all@keco.or.kr(해외 기후변화 동향)